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일반 중·고교 대상...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 절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술·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화여대에서 '중·고교 단계의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지정·운영되면, 소수의 예술·체육 중심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국의 예술고는 27개교, 체육고는 1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

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 내 '예술·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교는 30~40%를 예술·체육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은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을 나누어서 선발하며,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한다.

교과부는 내년 30곳 내외의 학교를 지정해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지정 초기 시설 확충비 5억원과 연간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사·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11월 취업자 1만명 감소

실업률 3.3%...0.2%P 상승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8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 감소했다.

김장 관련 일자리 및 재배 면적 축소로 농림어업은 전년 동월 대비 15만 1000명 감소한 반면, 비농림어업은 공공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자를 중심으로 14만1000명 증가했다. 비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을 넘는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2357만8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2만1000명 감소했다.

11월 실업자는 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9000명(9.3%)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보다 0.9% 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0-29세(-10만9000명), 30-39세(-14만 2000명), 40-49세(-5만3000명)에서 감소한 반면, 15-19세(3만 1000명), 50-59세(22만8000명), 60세 이상(3만5000명)에서 증가

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만1000명(0.6%) 증가했으나 여자는 9만 1000명(0.9%)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만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만1000명)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15만1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12만9000명), 건설업(-11만5000명), 제조업(-4만3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679만명으로 41만3000명(2.5%) 증가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701만6000명으로 42만5000명(5.7%)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49만2000명(5.4%), 18만6000명(3.7%) 늘어났으나 알용근로자는 26만4000명(12.0%) 줄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9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2000명(8.4%)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3만7000명으로 30만4000명(1.5%) 감소했다.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3.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4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9000명(0.2%)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65만2000명으로 45만1000명(3.0%) 늘었다. 활동상태별로는 가사(26만2000명, 5.0%), 쉬었음(12만7000명, 9.6%), 연로(8만6000명, 5.7%), 육아(6000명, 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통학(-4만명, -0.9%)에서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5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2000명(25.3%) 증가했다.

며느리·딸이 아이 키워달라는데...

“할머니 육아 걱정 마세요!”... ‘예비 할머니’ 육아교실 인기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손자를 키운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할머니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역할도 이전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비 할머니’를 위한 육아교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내년 1월 태어날 외손자를 기다리는 ‘예비 할머니’ 양동영(68) 씨. 늦은 첫 손자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애 키운 지가 안전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둔 ‘젊은 할머니’ 김순임(55) 씨도 양육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다.

12월초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 2층에서 열린 ‘예비 할머니 교실’에는 양 씨와 김 씨 할머니 등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참석해 강의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자 양육을 떠맡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예비 할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교실을 찾는 것.

“자식을 키워도 오래전이라 아기 양육법을 잊어버렸다”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아이라서 더 부담이 된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겨 자식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이야.”

이날 예비 할머니 교실에 참석한 이들의 참석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하나라도 놓칠 세라 돌보기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구경에서 나뉘준 자료를 열심히 보고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데 열중했다.

며느리의 권유로 교육장을 찾았다는 김순임 씨는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자식 키울 때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런 좀 낯선 느낌”이라며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맞벌이 며느리나 딸 대신 육아를 담당할 ‘예비 할머니’들이 서울 서초구청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아기 양육 지침서를 배우고 있다.

“강의 듣고 나니 자신감 생겨요”

서초구 예비 할머니 교실은 지난 11월 18일, 25일 그리고 이날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아기 목욕법, 기침이나 재채기 발생 때의 대처방법, 설사의 형태나 대처법, 기저귀 발진, 피부관리 등이었다.

서초구청 건강관리과 유영득 팀장은 “프로그램 내용을 할머니들이 가장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예비 할머니들은 육아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 주로 경험담에 의존해 아이를 키웠던 분들이라 강의 내용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초구청의 두 번째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 강의에 나선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최희진 대표는 모유 수유의 장점과 중요성,

모유 수유 요령과 문제 대처방법 등을 알려 주기도 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보관 등 ‘방범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모유는 냉장 보관 시 24시간, 냉동 보관하면 3, 4개월 동안 먹일 수 있고 해동을 할 때 자연해동을 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1기 예비 할머니 강좌를 열었고, 반응이 좋아 이번 2기 강좌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신청자들이 많아 내년에는 3기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서울서초구를 시작으로 구로구 분유 제조업체인 일동후디스 등이 예비 할머니 교실을 개최했다. ‘할머니 육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그동안 강좌마다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서초구청, 응급처치·모유 수유 요령 등 자세히 알려줘

첫 시간은 서울대 의대 양영희(소아정신과) 전임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양육법 강의가, 둘째 시간에는 이물질 등이 목에 넘어갔을 때의 대처법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원철 응급처치팀장과 함께 하는 실습으로 진행됐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의를 들은 예비 할머니들은 10킬로그램 가까운 인형을 들고 실습을 하며 기쁜 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열렬 할머니들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정부정책 포털에서 찾아요”

국민권익위, 21일부터 ‘정책’ 검색서비스 시작

앞으로 새로운 정부정책이 나올 때마다 네티즌들은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부터 정부 모든 부처가 신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질의응답형태(정책 Q&A)로 작성해 실시간으로 민간포털인 다음(Daum)과 네이버(Nate)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시행된 주요정책이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Q&A’ 형태로 일괄 취합해 인터넷포털에 제공하고, 향후에는 각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 Q&A’로 만들어 국민신문고 시스템(www.epeople.go.kr)에 등록하도록 한 후 인터넷포털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터넷포털에서 검색한 ‘정책 Q&A’를 보고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을 입안한 해당부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도 밝히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정부는 주요

정책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부정책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보부족은 결국 민원신청으로 이어지고,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이번 서비스 시행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월 28일부터 정부 각 부처의 협조에 국민신문고에 자주 신청되는 민원사례 약 2만 5000여 건을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고건

23일 공식 출범예정인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고건 전 총리가 확정됐다.

고 전 총리는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의 요직을 거치며 오랜 기간 경륜을 쌓았고 통합적 이미지, 중도실용의 철학, 도덕성과 투명성 등 역량과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적임자로 거론돼 왔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출신지역, 성별, 연령 및 활동분야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근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외연락처 (업무국)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6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전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연합신문
www.eduyonhap.com

교육연합신문 학생 기자에 도전하세요!

교육연합신문은 초·중·고교생들에게 영예가 되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은 학생 기자들이 활동하는 학교 편집, 교육분야 보도와 관련 어떤 정보와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해보고 기사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신문사의 영예가 되는 계층을 보는 눈을 넓히고, 글쓰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는 교육연합신문에서 다루는 관련 주제에 관련된 기사,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관련 보도, 학생들 위해 어떤 개인적인 고민과 사상을 밝히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1기 학생기자단 모집

- 모집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2009. 12. 1(수) ~ 2009. 1. 15(목) 오후 5시
- 모집인원 및 대상: 초등 1학년 ~ 6학년, 중등 1학년 ~ 고등 2학년 (성별 불문)
- 모집조건: 1.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고, 2.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고, 3. 교육연합신문에 대한 열정이 높고, 4.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과 사상을 밝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모집처: www.eduyonhap.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 문의전화: 032-433-1633 | www.eduyonhap.com